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882.0	16.2	125,500	-23	-4.9	-11.3	-23	87.5	41.9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496.7	20.7	337,500	-25	-14.6	-19.9	-25	4.5	3.8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447.9	5.0	22,000	-0.9	-19.9	-37.4	-0.9	2.1	1.8	0.2	0.2	9.3	9.7
현대건설기계	833.3	7.5	42,300	-0.9	-12.1	-34.2	-0.9	2.7	2.0	0.3	0.3	11.7	13.9
삼성중공업	4,561.2	17.4	7,240	-23	-2.4	-12.2	-23	45.7	22.7	0.4	0.4	1.0	1.9
대우조선해양	3,570.0	10.8	33,300	-25	1.4	-10.2	-25	9.8	13.6	1.0	1.0	11.4	6.1
현대미포조선	2,348.6	10.9	58,800	-20	7.9	7.9	-20	12.7	9.2	0.4	0.4	3.6	4.8
한진중공업	168.6	5.7	1,590	-39	-6.5	-37.3	-39	32.0	8.0	0.2	0.2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810.9	20.3	103,500	-33	10.5	-9.6	-33	18.3	17.8	25	22	14.6	13.3
두산밥캣	3,077.6	27.6	30,700	-25	-6.5	-22.7	-25	11.2	10.6	0.9	0.8	7.4	7.6
현대로템	2,273.8	2.5	26,750	-39	-1.3	-14.5	-39	34.5	23.5	1.5	1.4	4.5	6.3
하이록코리아	219.9	46.9	16,150	-1.8	-3.9	-33.7	-1.8	7.3	6.7	0.6	0.6	8.8	9.0
성광밴드	316.0	15.1	11,050	-3.1	3.3	-16.0	-3.1	976.8	39.6	0.7	0.7	0.1	1.8
태평	306.1	12.1	11,550	-1.3	-3.8	-18.9	-1.3	69.0	33.7	0.7	0.7	1.0	2.1
두산중공업	1,107.0	13.2	9,450	-29	-17.1	-36.1	-29	-39.0	8.8	0.4	0.3	0.2	4.2
두산인프라코어	1,525.8	20.0	7,330	-34	-13.7	-24.2	-34	5.1	4.7	0.8	0.7	17.1	15.8
HSD에프진	168.0	5.2	5,100	-34	10.6	8.7	-34	-134	-12.3	0.7	0.8	4.7	6.0
한국항공우주산업	3,167.9	12.9	32,500	1.9	2.5	-2.3	1.9	41.3	23.0	29	26	6.8	11.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714.7	14.4	32,950	1.4	1.5	25.3	1.4	95.5	23.7	0.8	0.7	0.9	3.3
LIG넥스원	841.5	9.5	38,250	3.5	3.5	5.5	3.5	81.3	19.8	1.7	1.6	2.5	22.9
태웅	197.7	4.6	9,880	-5.9	-5.0	-29.9	-5.9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텍	204.5	4.9	7,580	-1.8	-6.1	-12.5	-1.8	-19.1	30.2	28	27	-13.5	9.2
한국카본	299.8	14.6	6,820	-3.1	-3.3	-7.7	-3.1	64.3	20.6	1.0	0.9	1.5	4.6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현대중공업그룹, 올해 수주 목표 196억 달러...18.6% ↑**

현대중공업 그룹은 2019년 수주목표로 196.2억달러(+18.6% YoY)를 제시함. 그룹 조선 부문 수주목표는 157.2억달러(+20.9% YoY)로 현대중공업 80.2억달러(+17.9% YoY), 현대삼호중공업 41.7억달러(+30.3% YoY), 현대미포조선 35.3억달러(+17.7% YoY)로 구성됨.

현대중공업 그룹 합산 매출목표는 14조 9,864억원(+12.9% YoY)로 현대중공업 8조 5,815억원(+7.4% YoY), 현대삼호중공업 3조 3,594억원(+33.0% YoY), 현대미포조선 3조 455억원(+10.3% YoY)로 구성됨. 그룹 조선 부문 매출은 12조 4,900억원(+25.3% YoY)을 목표함.

올해 수주목표 달성을 동시에 원가절감에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中 환경규제로 유가 할증료 부과...향후 확대 불가피"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지난 12월부터 중국 및 대만 ECA 구역에서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유가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알려짐. 또한 향후 저유황유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할증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힘. 또 전세계 선사들은 올해 1월부터 유가 할증료를 추가 부과하는 상황임. (뉴스핌)

Containership scrapping falls to seven-year low in 2018

2018년 컨테이너선 폐선량 지난 7년 중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알려짐. 총 폐선량은 11.1만TEU로, 2017년 폐선량 42.7만TEU 대비 26% 수준을 기록함. 반면 2018년 인도량은 130만TEU이며, 동기간 컨테이너선 선복량은 2,230만TEU로 전년대비 5.7% 성장함. (TradeWinds)

Navigare Capital dives into LNG with newbuilding order at SHI

삼성중공업이 2018년 12월 20일에 수주했다고 발표한 LNG선 1척의 발주처가 덴마크 투자회사 Navigare Capital로 예상됨. 해당 선박은 17.4만CBM급으로, 선가는 1.86억달러(2.1억원)에 달함. Navigare는 2018년에 LNG선 부문에 처음 진입했다고 알려짐. (TradeWinds)

Alpha Gas linked to fresh LNG carrier order at DSME

대우조선해양이 2018년 12월 28일에 수주했다고 발표한 LNG선 1척의 발주처가 그리스 Alpha Gas로 예상됨. 해당 선박은 17.4만CBM급으로, 2021년에 인도가 예정됨. 발주처가 Alpha Gas이면, AlphaGas는 대우조선해양에 LNG선 수주잔고 4척을 보유한다고 알려짐. (TradeWinds)

Bumper year for LNG carrier orders as 2018 tally passes 60

2018년 발주된 대형 LNG선은 총 60척으로, 그 중 현대중공업은 23척,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18척씩 수주했다고 알려짐. Clarksons 기준 LNG선 수주잔고는 선박량의 23% 수준임. 2019년 LNG선 발주도 2018년 수준으로 예상되며, 병킹링 관련 중소형 LNG선 발주도 기대됨. (TradeWinds)

한화지상방산과 한화디펜스 합병에 한화디펜스로 새 출발

한화지상방산과 한화디펜스는 3일 모회사 한화지상방산이 자회사 한화디펜스를 흡수하고, 합병 뒤 존속법인 이름으로 한화디펜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함. 합병으로 방산원가 개선 및 비용감소 등이 기대됨. 한화디펜스는 2025년 매출 4조원, 글로벌 방산기업 순위 20위 진입 달성을 목표로 세움. (비즈니스포스트)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1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은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1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